

종합

# 광주 도심 경관지구 재조정 검토

## “재산권 침해” 민원따라... 5년만에 ‘손질’ 전문가들 보존까지 높은 경관 개발 우려

광주시가 도심 내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지정된 자연·수변·시가지 경관지구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경관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와 용도가 제한되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존까지 높은 경관까지 개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현재 수립중인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

경관지구 중 일부를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비행안전 제2구역 및 문화재지구인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이 제1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신창동 주민들에게 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2020년 광

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곳의 자연경관지구와 영산강 일대 3곳의 수변경관지구, 전남대·조선대 주변 등 5곳의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들 9곳의 경관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하(3층 이하)로 규제되며 경관에 위해가 가는 유충주점 등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 경관지구의 설정 및 해제는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이제 논의의 시작일 뿐”이라며 “보존 필요성이 높은 지역과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분류하는 것부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나 주민 등이 토지이용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관 지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향후 경관지구 지정 시 인센티브 제공,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관을 전공한 한 교수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규제만 하는 경관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불가피하지만, 행정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지역자원을 경관지구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경관지구 지정이 공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 내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전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가정어린이집 자원봉사단 발대 OB공장 시음장에서 송광은 북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름다운 이웃! 행복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북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전소성)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OB공장 시음장에서 송광은 북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명품 숲길·건강산책로’ 200곳 만든다

### 2015년까지 유명산 등 총 974km 조성

호젓하게 걸으며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전남지역 200곳의 명품 숲길 및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전남도는 오는 2015년까지 도내 유명산과 마을 뒷산 등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환경을 체험하면서 사색과 명상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명품 숲길 및 건강산책로’ 200곳을 조성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가 조성하는 ‘명품 숲길 및 건강산책로’는 ▲남도땅길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까지 즐길 수 있는 방향 200곳, ▲완만한 등산로와 우거진 숲길 등 걷는 재미가 솔솔한 순천 조계산, 담양 추월산, 고흥 팔영산, 보성 제암산, 장흥 천관산, 무안 오룡산 등지는 평탄한

도래길 24개소(141km) ▲건강산책로 170개소(539km) 등으로 총 길이가 974km에 이른다.

남도땅길 역사숲길은 해남 땅골에서 강진~영암~화순~곡성~구례를 잇는 산책로로,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까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된다. 또 완만한 등산로와 우거진 숲길 등 걷는 재미가 솔솔한 순천 조계산, 담양 추월산, 고흥 팔영산, 보성 제암산, 장흥 천관산, 무안 오룡산 등지는 평탄한

도래길로 정비한다.

전남도는 또 22개 시·군별로 주민 이용이 많은 마을 뒷산 등 170곳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노면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건강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53곳(461km)의 노면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조성 사업에 나서는 한편, 산책로 주변 관광지와 유적지, 야생화, 희귀목 등 볼거리를 이용해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 평동·하남산단 일부 용지 수의계약 추진

### 지원시설용지·주차장 등 입찰 참여자 없어 계약 취소판 계약금 환불 ‘토지리턴제’ 도입

광주도시공사가 매수세가 없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주택용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 후 이를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까지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으나 매매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도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배치되고 있는 지원시설·주택용지 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도시공사는 12일 “지난 10월 초 경평입찰로 내놓은 평동 2차 산업

단지 내 지원시설·주차장·단독주택·폐기물처리시설용지와 하남 2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신창지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 입찰참여자 없이 13일부로 수의계약으로 매수자를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측은 매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매대금 납부방법을 애초 4개월에서 12개월로 8개월 연장해 무이자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토지리턴제’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대상은 평동2차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22필지(3만8841.6㎡), 단독주택용지 88필지(3만1693.0㎡), 주차장용지 4필지(1만4640.8㎡), 폐기물처리시설용지 1필지(3만2396.4㎡) 등 모두 115필지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들 용지가 미분양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지방채도 줄이지 못해 서둘러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시설용지 등의 미분양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가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원시설·주택용지 등을 과도하게 배치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도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 2005년 평동 2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제 부지의 22%에 이르는 56필지(37만3276㎡)를 지원시설용지로 배치했다가 을 들어 이 중 34필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차액인 1280억원을 3~4년간 시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내년 행복마을 사업 화순 도장마을 등 9곳 선정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추진하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 대상으로 화순 도장마을 등 9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주민 참여도, 추진역량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화순군 도암면 도장마을 ▲해남군 북평면 해남김치마을 ▲완도군 청산면 도라마

을 ▲보성군 북내면 원봉마을 ▲영광군 법성면 발파마을 ▲함평군 대동면 마량마을 ▲무안군 청계면 복길마을 ▲고흥군 도암읍 용정마을 ▲장흥군 관산읍 옥촌마을 등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의 경우 한옥 1채당 4000만원 안팎의 보조금과 3000만원의 용자금 지원과 마을에는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한다.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각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중 행복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도 선정해 지원된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 호남 농가 수 30년새 절반 줄었다

### 작년 119만가구... 농가 인구도 80%가까이 감소

호남지역 농가 수가 지난 30년새 무려 57%가 감소,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30년간 농가 수가 절반 이상 줄었으며, 농가인구도 80% 가까이 감소했다. 농가의 소비 지출 중에서는 식품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농가의 교육부담 지출은 전국 평균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농업통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수는 119만5000 가구로 1970년(248만3000 가구)보다 128만9000 가구(-51.9%)가 감소했다. 호남지역은 57%가 감소해 전국에서 농가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작

년 농가 인구는 311만7000명으로 1970년(1442만2000명)보다 1130만4천명(-78.4%)이 줄었다. 전국 인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4.7%에서 지난해 6.4%로 급감했으며, 농가 가구당 가구원 수는 1970년 5.8명에서 지난해 2.6명으로 감소했다. 농가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1970년 98.7명에서 지난해 94.0명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농업 가구당 영농 종사자는 2.17명으로 2007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농가 소득은 3081만4000원으로 농업소득(1212만8000원), 농업소득(969만8000원) 순이었다. 지난해 경지 면적은 174만7000ha로 1999년(189만9000ha)보다 16만2000ha 줄었다.

지난해 농가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221만4000원이었는데 이중 소비지출이 166만8000원으로 75.3%를 차지했다. 농가 소비지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식품·비주류음료(월평균 37만3000원)로 전국가구평균보다 1.25배 많았으며 농가 전체 소비지출의 22.4%를 기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선관위 사무총장 이종우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우 사무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30여년간 선거업무에 종사한 선거관리 전문가로 경기도 선관위 사무국장,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과 법제실장, 사무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연합뉴스

그 정도면 국민들도 많이 챙겼구만

###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최신형 KDVD-2300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직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두엇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수도 시중 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로컬내 최대곡이 내장되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만능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 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이펙트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매문의 02-522-4355

###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켈런트 시계가 아심 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자칼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난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엘로우 골드까진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버클과 밴드에 자칼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리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며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나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맛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 ★ 사례금 100만원 ★

##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치매가 심하고, 반백 짧은 스포츠형 머리, 분홍색 환자복 착용(목 뒷부분에 연락전화번호 있음), 맨발 또는 양말 차림, 왜소한 편, 베이지색 점퍼(추정), 말(대화)하기 좋아하심.)

■성명: 박연택(남/78세)

■실종 일시: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추정

■실종 장소: 광주 북구 생동동

신고자 : 010-3605-8400  
요양원 : (062) 571-0129, 572-0129

### 을겨울부모님 건강선물

따뜻따뜻한~~ 천연항토 쿠들

100% 천연항토

규격 1,200×2,000  
재질 편백나무와 황토석

특별가 ₩1,850,000 → ₩150만원

항토석이란?  
천연의 황토가 수만년동안 퇴적과 압력작용을 거듭하면서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흙들을 말한다.

항토주택 / 항토방 / 편백 인테리어 시공

항토석 판매및시공 전남북 총판 T.010.9887.4578